

“트럼프 종전MOU 불승인...이란에 조건 강화 수정안 발송”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확인 안 돼 “기존 합의 수용 압박 의도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MOU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NYT는 이날 당국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당시 미국이 대 이란 제재 등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2018년 직접 JCPOA에서 탈퇴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새 제안을 내놓

은 것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종전 MOU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발표 없이 회의를 마쳤다.

MOU 초안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연장된 휴전 기간에 이란 비핵화 관련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핵 협상 상황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미국 매체에 보도됐다.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딜레이니 홀 구급 시설 앞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동안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AP=연합뉴스

美미네소타서 이민자에 총격 가했던 ICE요원 체포

올해 초 미국 미네소타주(州)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29일(현지시간)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네아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했다고 증언했다.

추후 두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시 보안 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삽으로 먼저 공격했다는 캐스트로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키스 엘리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캐스트로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받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기쁘다”며 “사필

귀정(Justice demands no less)”이라고 평했다. 반면 ICE 측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미네아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 이민자 단속 작전을 펼친 지역이다.

강압적인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ICE 요원의 총격에 미국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해 전국적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캐스트로 기소를 주도한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는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 흥분 속 차량에 불을 지른 축구 팬들. /AFP=연합뉴스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 흥분 속 파리 폭력사태

일부 축구 팬들, 경찰 공격·상점 방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우승한 뒤 흥분에 휩싸인 파리 각지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 수백명이 구급됐다.

31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파리에서 체포된 28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16명이 구급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7명이 다치고 차량 6대와 사업체 2곳이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파리 경찰청은 이날 PSG의 우승이 확정된 후

약 2만명이 샹젤리제 거리에 모였고, 이 중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고 차량 등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파리에 있는 PSG 홈구장 근처에서도 경찰과 축구 팬들 사이 충돌이 벌어졌으며, 팬들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폭죽을 투척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에도 PSG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201명이 다치고 500명 이상이 체포된 전례가 있다.

프랑스 경찰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비해 전국에 경력 2만2천명을 배치하고 파리 시내 트램·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제했으나, 폭력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침수’ 라오스 동굴서 생존 확인된 5명 모두 구조

라오스에서 폭우로 침수된 동굴에 열흘가량 갇혀 있던 주민 7명 중 생존이 확인된 5명이 모두 구조됐다.

30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라오스 중부 사이솨분주 룡쟁 지역 동굴에서 생존자 5명 중 1명이 전날 우선 구조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4명도 모두 무사히 동굴에서 빠져나왔다.

태국인 구조 잠수사들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구조대원들이 갇혀 있던 4명을 추가로 구조했다”면서 “현재까지 총 5명이 구조됐고 2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밝혔다.

라오스 구조단체 등에 따르면 구조대가 동굴

물을 펌프 등으로 빼낸 뒤 동굴 내부 수위가 충분히 낮아져 생존자 4명은 식량과 물을 전달 하려고 들어갔던 구조 잠수사들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왔다.

구조 자원봉사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머리에 손전등을 두르고 진흙투성이 차림의 4명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살아난 이들은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구조대원들은 이들을 동굴 밖 임시 천막 아래로 옮겨 들것에 실은 채 담요를 덮어주고 돌봤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